



신제품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

발코니타입 고속카토너 개발

조의수 / 천세자동기(주) 대표이사

제 2회 한국포장기계협회 대상 기술개발 부문에 천세자동기(주) 조의수 사장이 선정되었다.

천세자동기(주)는 1980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자동 카톤 포장기계, 자동 수축포장기계, 포장 자동화 장치, 자동 조립기계 생산에 주력을 다하여 왔다.

한국포장기계협회 대상 기술개발 부문을 수상하게 된 천세자동기(주) 조의수 사장을 만나 보았다.

▶ 수상소감

- 저희보다 더 노력하여 한국의 포장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수많은 포장기계업체의 사장님들, 종사자 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척박한 불모지에서 좋은 설비를 만들기 위하여 땀흘려온 선대 업체에 감사드리며 함께 10여 년 이상씩 동거동락하며 애쓰고 수고한 천세자동기(주)의 임직원들에게 이 상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더 좋은 포장기계를 만들어



포장산업계에 유익을 끼치는 회사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기대에 부응하고자 고객 필요로 하는 기업, 유익한 기업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수상제품인 천세발코니타입 고속카토너 C-300에 대하여

- 발코니 타입의 고속카토너는 1998년도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품목으로 선정되어 한양대학교와 산·학 공동으로 2년간 4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된 포장기계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업계 등 넓은 분야에 활약이 기대되는 최선의 카토너입니다.

이제까지의 카토너는 속도면에서 분당 250개 이상의 설비는 대부분 독일이나 이태리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왔으며, 구조면에서는 주요 구동부가 설비의 중심하부에 배치되어 제품, 지분, 첩부문서가 낙하될 경우 기계가 오염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 끝에 천세발코니 타입의 C-300 카토너

고객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기업

를 개발하였습니다.

천세발코니타입의 C-300은 GMP규제의 강화에 대응하여 기계로부터의 제품과 카톤 지분 및 첨부문서의 낙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쉽게 제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계의 청소와 정비가 쉽도록 되어 있고, 메인구동부와 구동 모터 등은 구분되어진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였으며, 카톤 성형부, 제품 푸셔부(충진부)도 구분되어 확실히 GMP, FDA에 적합합니다.

3헤드의 포타리 카톤 성형 취출 장치는 분당 300개의 고속 운전에도 카톤을 정확히 흡착하여 취출하는 안정된 구조로 제작되었고, 카톤 메저진콘베어는 약 1500매의 카톤을 적재할 수 있으며, 디지털인디케이터를 부착하여 핸들로 심플하게 사이즈 체인지가 30분 이내 가능합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일

- 1차 년도에 개발 시제품을 만들었으나 크게 기대에 부응치 못하여 고민하던 차에 해외 협력 포장기계 중역분의 자문과 정보로 2차 시제품을 상품성을 보다 높은 발코니타입으

로 급히 방향을 결정하고, 많은 설계 개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개발에 힘써온 날들과 최종 제품이 완성되어 2000년 12월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술대전에 출품 된 뒤 연이어 계약이 이루어 졌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업계에 바라고 싶은 내용

- 한국포장기계협회를 중심으로 포장기계 회원사의 공동관심 사항의 해결과 교류를 통한 업계의 발전 노력이 더욱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종업계에서도 관련 단체를 잘 활용하여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 향후계획

- 핵심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신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포장 자동화 라인 전문업체로 기술력을 축적하여 고객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기업으로 다져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

권해진 기자